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

2023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3.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출장기간: 2023.6.5.~6.9, 대상국가: 중국 상하이, 하이난)

1 개요

□ 출장 목적

-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의 증진 및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추진방안 협의를 통한 우호교류 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9. 6. 19.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의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한 고찰 및 제주-하이난 간 직항노선 개설 논의 등을 통한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방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제주 수출기업의 對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모색

□ 출장 기간 : 2023. 6. 5. ~ 6. 9. / 4박5일

□ 대상국가(지역) 및 방문기관

- 출장국가: 중국(상하이, 하이난성 하이커우)
- 방문기관
 - (상하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 (하이난성)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하이난성 인민정부, 중국(하이난)개발발전연구원, 경제·문화·관광 시설 등

□ 출장자 인적사항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1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2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지형
3	제주연구원	행정직	소영진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명(의장 외 3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실장 외 2명) 동일 일정 출장

2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6.5. (월)	제주 13:40	상하이 14:25	(출국)	• 제주→ 상하이	
	16:30 - 17:20		해외통상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 사무소 상해대표처 방문 -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對 중국시장 진출전략 모색	해외통상사무 소장
6.6. (화)	상하이 09:30	하이커우 12:20	(이동)	• 상하이→ 하이커우	
	16:00 - 17:30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전략 사례 조사 및 관련 업무협의	하이난 개혁발 전연구원장
6.7. (수)	09:30 - 11:30		하이난성 상무위원회	• 하이난성 인민대표회의 상무 위원회 방문 - 국제교류 활성화 및 향후 교류 추진방안 업무협의 등	하이난성 인민 대표회의 상무 위원회 부주임
	16:00-17:30		하이난성 강동신구 개발단지	• 하이난성 강동신구개발단지 (계획전) 방문 - 자유무역도시 개발 계획 청취 및 우수사례 조사	
6.8. (목)	10:00 - 12:00		자유무역도시 개발 관련 기관	• 하이난성 내 자유무역도시 개발 관련 기관 방문 - 국가 하이테크 산업밸리 등 시찰을 통해 하이난성 경제 발전 우수사례 조사	
	14:00 - 16:00		문화관광시설	• 하이난성 문화관광 시설 견학 - 하이난성 내 문화·관광 우 수사례 조사 등	
6.9. (금)	하이커우 13:35	상하이 16:30	(이동 및 환승)	• 하이커우→ 상하이	
	상하이 19:10	제주 21:30	(입국)	• 상하이→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 일 시 : 2023. 6. 5.(월) 16:30 ~ 17:20
- 장 소 : 상해시 장녕구 연안서로 2299호, 세무상성 10A47
- 주요기능 :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판로개척 등 통상업무
- 주요현황

구 분	‘23년 2월	‘22년	‘21년
중화권 수출 지원실적	14개사/ 531백만원	22개사/ 2,634.6백만원	27개사/ 3,622백만원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27개사/78회	35개사/210회	59개사/122회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1회	8회/16개사	11회/69개사
유통 및 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	1회/38개사	(유통) 36개사/206품목 (협력) 59개사/96명참석
중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	78개 매장(직영+지점)	206개 매장(직영+지점)

○ 방문 주요 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의 운영목적은 제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현지 지사 역할 수행을 통한 제주상품의 수출활성화 지원임(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는 현재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동경 2곳에 운영 중에 있음
 - 중국 사무소는 기존 베이징 홍보처가 폐지되면서 2015년 8월 상하이에 설립되었음
 - 상해대표처는 현재 4명이 근무중이며, 2018년 10월 상해대표처 소장 공모선정을 기점으로 민간전문가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예산액은 상해대표처 5억 1천 8백만원임(인건비 2억 3천 2백, 사업비 1억 7천, 운영비 1억 1천 6백만원)

- 상해대표처의 주요 업무는 유통채널 내 제주상품 입점, 박람회 참가 및 지원, 무역상담회, 왕홍 행사 진행, 상품 상담회 등임
- 상해 대표처의 경우 현지 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국가의 특성 상 기존 인적 네트워크로 단기간에 그들과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하나의 특정 제품 혹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보다는 'Jeju'라는 브랜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현재 중국의 쇼핑 시스템은 3.0시대 신유통(소비자→제품→채널) 형태로 온/오프라인이 통합되어 있어 제주진흥원 본사와 제휴 중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에 집중할 예정임
- 현재 한-중의 무역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주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유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 2023년에는 보세구 운영업체 집중 발굴, 과징 전문 유통채널 개발, 중국 내 각종 인증제도 지원에 집중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유통 중인 상품보다 새로운 제주기업 상품을 우선으로 홍보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일 시 : 2023. 6. 6.(화) 16:00 ~ 17:20

○ 장 소 :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우영구 창동서길 3호, 개혁발전연구원 505 회의실

○ 참석자 :

- 제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정지형 연구기획부장 외 8명
- 중국 츠푸린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 GUO DA, KUANG XIAN MING 부원장 외 8명

○ 주요기능 :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중국 개혁을 연구원의 주요 업무로 삼고 있으며, 개혁 개방과 관련된 연구를 정부 의사결정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출하고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의 츠푸린(迟福林) 원장은 제주와 하이난 간의 적극적 교류를 인정받아 2019년 제주 명예 도민증을 수여받았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제주연구원과 2016년 6월 MOU 체결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방문 주요 내용 :

- 2018년 4월 1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하이난 특색자유무역항'을 건설하고자 발표한 이후 선후 3차례 중국 특색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를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总体方案)>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 하이난은 경제특구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지리적으로 내륙과 분리된 섬이어서 독립관세구역인 자유무역항 개발에 유리한 조건임
- 이와 함께 하이난은 중국 해양강국(海洋强国) 발전전략의 요충지로서 일대일로해상실크로드 거점 개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대외개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비스업의 개방과 발전을 우선시 하고 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

제자유도시”로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하이난은 중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역으로 제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하이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당초 제주 면세점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100,000元(한화 약 2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최근 2022년 10월 28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하이커우 면세점이 개점되었음
- 하이난 또한 3차 산업(관광)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관광객 유치, 부동산 상승 문제, 환경 개발과 보존, 쓰레기, 인구 유입 등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 개최되었던 제주-하이난 포럼을 다시 개최하여 국제자유도시와 자유무역항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 간 크루즈, 관광·문화·의료·레저 및 국제 시장의 공동 마케팅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제주연구원과의 국제세미나 재개, 개혁개방 국제세미나 참석요청, 자유무역항 포럼 참석 요청, 양 지역의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진행 등 코로나가 종식된 만큼 양 지역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건의사항**

1. 제주-하이난 포럼 연내 개최 : 주최 및 주관 기관은 동일하나 참여기관의 범위 확대

*** 참고) 제주-하이난 포럼**

- 목 적 : 제주와 하이난성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별 실무협의체 기반 구축		
- 참여기관 : 2019년 제주-하이난 포럼 참여기관		
구분	한국	중국
지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하이난성인민정부
주최기관	제주연구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이난성 관광문화광전체육청
공동주관	제주관광공사	하이난성 상무청
	제주상공회의소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컨벤션국
협력기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하이난 개혁발전연구기금회

2. 제주연구원과의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코로나 이전 제주연구원과 활발히 교류를 진행해온 만큼 이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양지역 싱크탱크로서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주최 개혁개방 국제세미나 참석 요청

- 개혁발전연구원에서는 매년 10월말 400 - 500명 규모의 글로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개혁개방 세미나 이지만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개최하는 만큼 제주연구원의 참여를 희망함

4. 글로벌 자유무역항 참석 요청

-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시사점 도출

5. RECP 싱크탱크 포럼 가입 및 세미나 참석 요청

- 현재 하이난에서는 자유무역항 추진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일 시 : 2023. 6. 6.(7) 09:00 ~ 12:00

○ 장 소 : 해남시 미란구 백용가도 국흥대로 69호, 해남광장

○ 구 성 :

- 제7기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총 65명(부주임 6명, 비서장 1명, 위원 58명)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내무사법공작위원회, 재정경제(예산)공작위원회, 민족종교공작위원회, 화교외사공작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공작위원회, 농촌공작위원회, 환경자원공작위원회 등 8개 위원회

○ 주요기능 :

- (법률 및 정책 제안) 중요한 법률 및 정책 개발과 이행을 위한 제안 검토 및 제출
- (정책 개발) 하이난성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관련 부서와 협력
- (지역 발전) 다른 지방 기관, 기업 및 조직과의 협력 촉진 및 인프라 개발,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대외 교류) 중국 정부의 대외 문제와 관련하여 하이난성의 입장 대변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촉진

○ 주요 면담자 : 손대해(孙大海_쑤다하이)

- 주요경력

- 하이난성위원회 비서장, 성위원회 관공청 주임
- 하이난성위원회 부비서장, 성위전면심화개혁위원회판공실 주임
- 톈진시위원회 단교상무부교장, 교무위원회 주임

○ 방문 내용

- 양국은 경제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협력 및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제주와 하이난은 지속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코로나가 종식된 만큼 상호 간

더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문화·관광·교육·자유무역항 등 다방면의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우주항공 분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난과 제주가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서로의 강점들을 배워가면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되기를 희망함
-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양 지역의 학생들이 하이난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등에 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램
- 또한, 상호 간 국제회의(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함.

○ 주요 질의 증답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는 '02년 국제자유도시, '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위치를 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하이난성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항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 (쑤다하이 상무위원회 부주임)

- 육성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소득세 15%를 인하해 주고, '25년에는 무기, 마약, 식량을 제외한 하이난섬 전역을 면세화하고자 함
- 원자재,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사전에 신청하면 면세가 가능하고, 미화 1.5만불 한도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앙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 입법 기능까지 하이난성에 권한을 주고있으며, 중앙정부 지원조직은 별도로 있지 않고 하이난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 하이난성을 위한 2개 부서가 운영 중인데, 중국 22개성 중 중앙정부에 2개 부서가 운영 중인 곳은 하이난이 유일함. 이를 통해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 추진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중앙으로의 보고 및 조속한 해결이 가능함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 하이난 교류현황**

- 2015년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이후 제주와 하이난 양 지역에서 각 각 ‘하이난의 날’, ‘제주의 날’ 선포식이 진행되었음
- 2018년 11월 2일 ‘제주도-하이난성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를 위해 2019년 1월 9일 -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ICC 제주 관광공사, 제주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여 실무협력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19 제주-하이난 포럼’을 추진하였음
- 이후 중국 하이난에서의 답방과 ‘제주-하이난’ 포럼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음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15. 10.	- 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에 선정 - 제주와 하이난 양 지역에서 각 각 ‘하이난의 날’, ‘제주의 날’ 선포식이 진행	
2018. 11. 2	- ‘제주도-하이난성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양 지역 간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합의	
2019. 1.9-10	- ‘2019 제주-하이난 포럼’ - 참여 기관별 실무협력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 *이후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됨	
2019. 6. 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23. 3. 29	- 오영훈 지사 중국 하이난 방문 중국 자유무역항과 국제도시의 유사성, 글로벌 교류확장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의 경제성장률 제고	

체결일자	교류도시(중국-제주)	종류
2019. 6. 19.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호교류 양해각서
1995. 10. 6.	하이난성-제주특별자치도	자매결연
1999. 11. 19.	산야시-서귀포시	우호도시
2016. 6. 29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하이커우 강동신구 전시중심센터 방문

○ 일 시 : 2023. 6. 7.(수) 16:00 ~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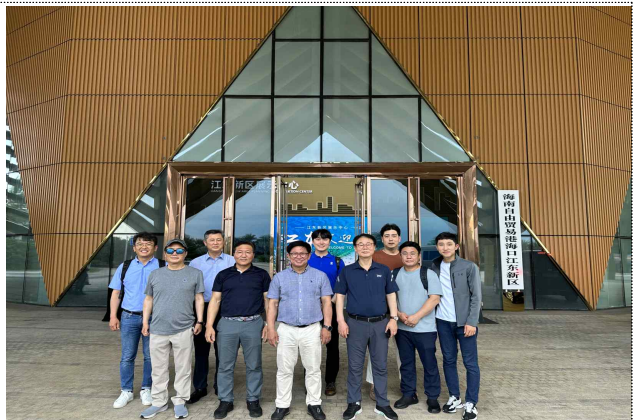
○ 장 소 : 하이난성 하이커우 강동신구 흥양대도 181호

○ 주요기능 :

- 강동신구 전시중심센터는 새로운 시대의 하이난성 전략적 기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하이커우 강동신구의 전략적 위치와 건설 수요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2019년 4월에 공식 개장하였으며, 건축면적은 총 3,971m²임 그 중 전시관의 면적은 3,220m²이고, 관광 타워의 면적은 751m²임
- 2020년 6월 3일, 하이커우 강동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11개 핵심 산업단지 상장식의

주요 장소로, 새로운 지역은 공식적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하이커우 강동 신구”로 등재되었음

- 전시관은 4개의 전시 구역으로 나뉘어, 제1전시구역은 국가전략신구 설립 및 주로 하이난의 자유무역항의 기원, 발전목표 등을 소개하고, 제2전시구역은 주로 입지우위 소개, 생태 배경 및 도시계획 설계안 등을 소개하고 제3전시구역은 강동신구의 생태 환경, 도시와 농촌의 융합, 생태와 공존하는 도시 등을 소개하며, 제4전시구역은 고차원 개혁개방의 새로운 구도로 강동신구의 비즈니스 환경, 인재정책, 제도혁신 및 정책효과를 소개함
- 하이난 정부에서는 강동신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지역의 주택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현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이주 문제, 당초 외지인의 별장용으로의 주택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난제라고 할 수 있음



하이커우 강동신구 전시중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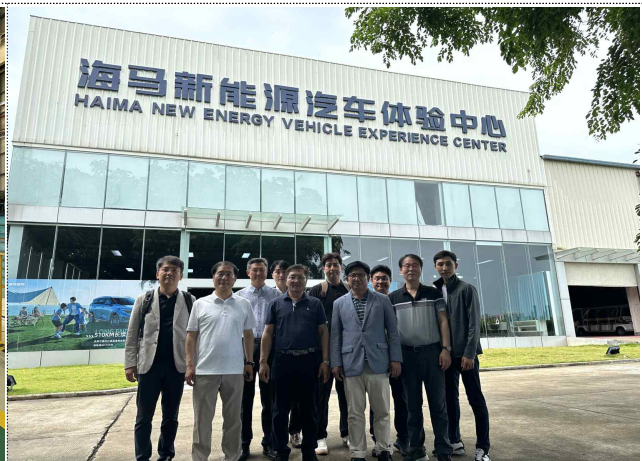
□ 해마다동차 유한공사 방문

○ 일 시 : 2023. 6. 7(목) 09:30 ~ 12:00

○ 장 소 :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룽화구 금반로 2-8호

○ 주요기능 :

- 해마다동차는 중국 500대 기업 및 100대 기계공업기업에 속하며, 중국 하이커우 진판 산업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00만, 연간 자동차 생산은 150,000대, 직원은 총 18,800여 명임
- 2020년 1월 15일, 해마다동차는 하이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국 내 최초 70Mpa 수소 연료 전지 MPV를 공개함.
- 2021년 4월 10일 해마다동차와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총공사 101연구소는 하이커우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가동에 들어갔으며,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제품 차량이 연구개발에 투입된 상태임
- 해마 7X-E 자동차는 1회 충전 시 510km 주행이 가능하고, 5차원 안전 보호 적용 및 540°초고화질 파노라마 영상 시스템 탑재, HAVP 메모리 주차 등 220V 스마트 충전이 가능한 기능들이 있음



해마다동차

□ 상해대표처에 대한 시사점

■ 운영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최근 설치되고 있는 지자체의 해외사무소는 과거 국제교류업무를 주(主)로 삼고, 기업 지원과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과 같은 통상업무는 부차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보임
 - 최근 설치되고 있는 지자체의 해외사무소는 기업지원과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과 같은 통상업무가 주된 업무임
- 지자체 해외사무소의 경우 정부 기관(코트라, 한국무역협회, aT센터 등)과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지역 기업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
- 해외사무소의 특성상 비영리 활동만을 해야하는 만큼 중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제주도의 중국사무소가 능동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능을 지원부서 성격에서 벗어나 사업부서로 전환하고 독자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 운영 관련(공무원 파견)

- 상해대표처의 경우 설립 초기 도 공무원을 파견하였지만 현재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음
 - 종전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었지만 언어,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였음
- 하지만 현지채용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면, 제주도에 대한 애정도 및 조직의 충성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현지채용 인력으로 장기간 운영될 경우, 중국 현지에서 얻는 노하우와 축적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해외사무소의 책임자는 행정기관 파견으로 하되 현업 전문가는 실무책임자 형태로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현지에서 채용된 인원이 시장조사,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 기능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2년 이내의 임기, 필요에 의해 3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짧은 파견기간으로 현지 적응에 대한 시간 부족, 업무 숙지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음

■ 조직 운영 관련(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앞서 상술했듯이 최근 해외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기업 지원, 바이어 발굴 등 통상 업무임
-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이에대한 관리가 필요함
 -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서 시장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주 실정에 맞는 (가칭) '중국 소비시장 리포트(Jeju in China)' 등을 통해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인증 및 통관 등에 대한 공유정보가 필요함
- 사드 배치 사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한중 관계가 완화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 발전 가능성,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함
- 기존의 해외사무소들이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상 업무와 효과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정책의 핵심은 서비스업 중 특히 관광업의 개방이며 이는 과거부터 추진 중인 지역발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당초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등에 국가의 정책에 관심을 두었으

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양이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제주에 대한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음

- 하지만 하이난에서의 자유무역항 추진에 있어 세수, 무역, 투자, 산업발전,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주에의 시사점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유치, 면세점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제주에서는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위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 있어 이에 대한 제주-하이난의 연계성 모색이 필요함

- 현재 하이난에서는 국제 크루즈 모항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노선이 대부분임

- 하이난의 경우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이기도 하여, 향후 서쪽(유럽)에서의 크루즈 전진기지화 동쪽(하이난-필리핀-대만-한국-일본-러시아)노선으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어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중국에서도 중앙정부의 대외협력 노선의 기초아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지방외교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각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력분야를 모색하고 있음

○ 제주는 특히 하이난과 지역을 대표하는 섬 관광지이며, 지리적 유사성과 지역 특성상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들 또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양 지역 간의 주요 정책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하이난의 경우 성위원회 - 성정부 - 개혁발전연구원, 제주의 경우 도의회 - 도청 - 제주연구원 등 지역의 의사결정기구와 행정기관, 싱크탱크가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향후 교류 협력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주-하이난 포럼 재개를 통해 양 지역의 우호관계 증진과 참여기 관별 실질적 교류협력 플랫폼 마련을 통해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이 필요함